

김민재 선발로 뛴 뮌헨, 하이덴하임과 난타전 끝에 3-3 무승부

등록 2026.05.03 11:27:27



[뮌헨=AP/뉴시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2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26 분데스리가 32라운드 하이덴하임과 경기 중 공을 다투고 있다.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했고, 리그 우승을 조기 확정된 뮌헨은 최하위 하이덴하임과 3-3으로 비겼다. 2026.05.03.

[서울=뉴시스] 하근수 기자 =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우승을 조기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이 하이덴하임과 가까스로 비겼다.

뮌헨은 지난 2일(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하이덴하임과의 2025~202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2라운드 홈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거뒀다.

이날 무승부로 1위 뮌헨은 승점 83이 됐고, 하이덴하임은 승점 23으로 18위에 머물렀다.

뮌헨은 닷새 뒤인 7일에 있을 파리 생제르맹(프랑스)과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2차전 홈 경기를 위해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요나탄 타와 함께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교체 없이 풀타임을 뛰었지만 승리를 이끌지 못했다.

뮌헨은 전반 22분 부두 지브지바제에게 선제골, 31분 에렌 딩크치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흔들렸다.

전반 44분 레온 고레츠키의 만회골로 물꼬를 튼 뮌헨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해리 케인, 루이스 디아스, 마이클 올리세, 요주아

키미히를 동시에 투입했다.

교체 출전한 올리세는 후반 12분 코너킥으로 고레츠카의 멀티골이자 동점골을 도우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뮌헨은 후반 31분 지브지바제에게 다시 실점을 허용하며 역전 기회를 놓쳤다.

패색이 짙어졌던 뮌헨이 추가시간에 돌입한 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55분 올리세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든 뒤 왼발로 슈팅했고, 골대를 강타한 볼이 골키퍼를 맞으면서 득점이 됐다. 경기는 그대로 3-3 무승부로 끝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hatriker2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